

# 나가사키현 기업의 한국 비즈니스

시노노메 카즈히로(신와경제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 차례 >

### 서 론

1. 나가사키현의 무역현황
  2. 한일FTA체결의 움직임
  3. 나가사키현내 기업의 앙케이트 결과분석
  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한국 비즈니스 추진에 대한 대처
- 마무리

##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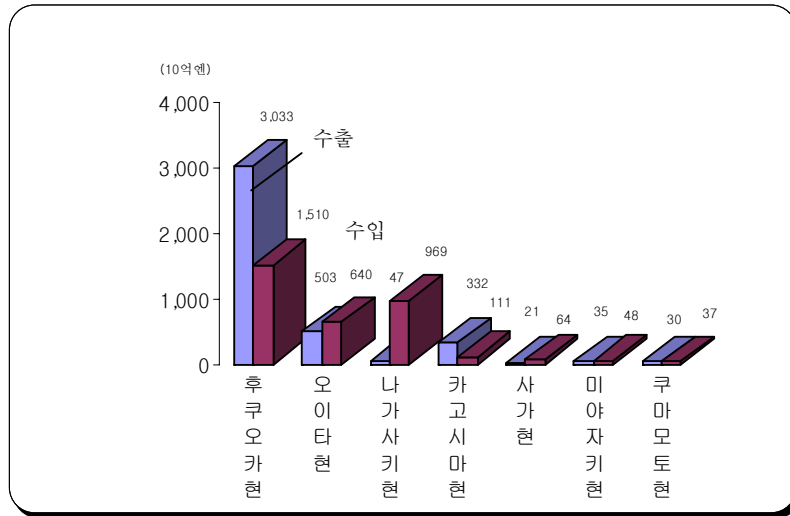
2005년은 일본과 한국과의 국제교류정상화 40주년의 해이다. 한일 특히 큐슈와의 경제 교류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양국간에 있어서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움직임도 있으며 금후의 무역 및 투자 등의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과 경제교류가 확대하는 가운데 나가사키현과 한국과의 무역거래 현황을 관세통계를 통해 개관하면서 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비즈니스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후의 한국 비즈니스 추진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나가사키현의 무역개황

### (1) 나가사키현의 무역거래액

2004년의 나가사키현내 4개의 세관(나가사키항, 사세보항, 나가사키공항, 이즈하라항)이 취급한 무역거래액은 수출이 3,323억엔, 수입이 1,108억엔이었다. 큐슈 7현 가운데 나가사키현의 무역액 순위는 수출이 제3위, 수입이 제4위, 수출입합계로 제4위가 되며 수출입통계로의 순위는 과거 10년 연속해서 제4위의 지위에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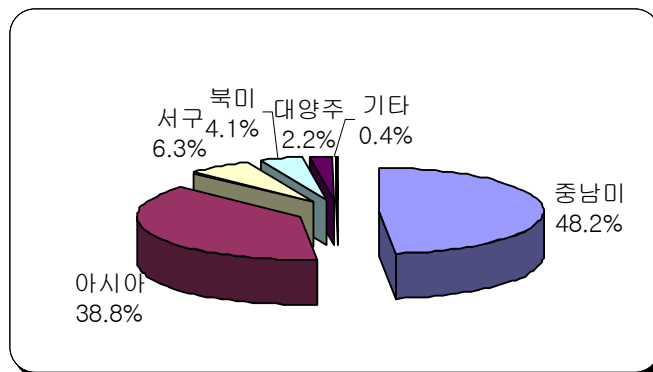
자료 : 몬지세관무역통계

<그림 1> 큐슈7현의 무역액 비교(2004년)

## (2)나가사키현의 주요한 무역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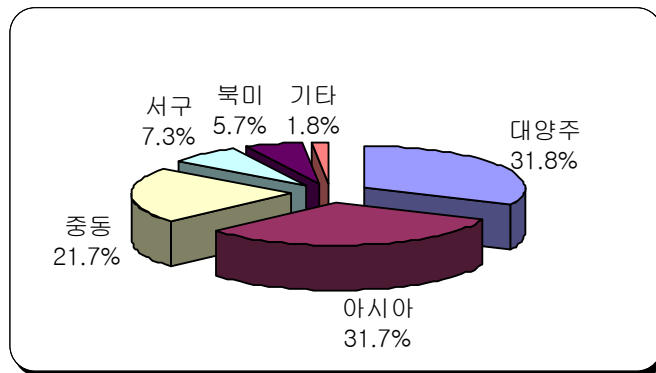
2004년의 나가사키현의 무역상대국을 지역별로 보면, 주요한 수출국은 선박관련의 수출액이 크며 중남미와 아시아지역이 전체 수출액의 약80%를 점하고 있다. 한편 수입국으로는 석탄이나 LPG 및 LNG등의 광물성연료의 주요한 수입원인 대양주, 아시아, 중동지역이 전체의 약80%를 점하고 있다(그림 2, 그림 3).

또한 나가사키현의 수출입거래합계액이 가장 큰 지역인 아시아지역의 무역상대국 중에서 상위1위와 2위는 크게 선박수출실적이 있었던 싱가포르와 홍콩 다음으로 한국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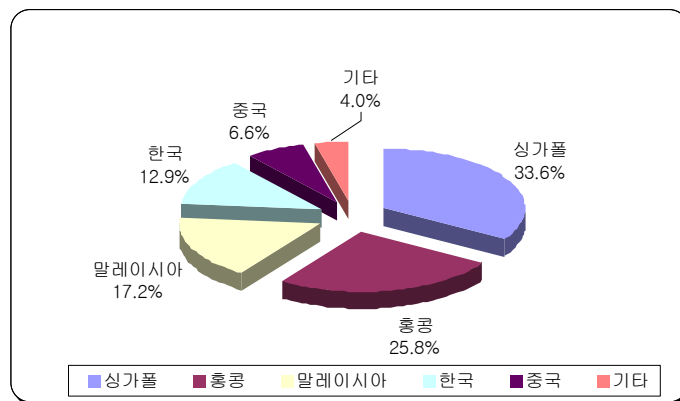
자료 : 나가사키세관무역통계

<그림 2> 지역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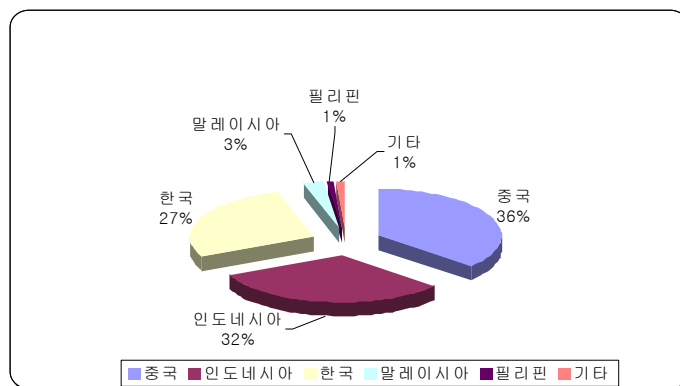
자료 : 나가사키세관무역통계

<그림 3> 지역별 수입액



자료 : 나가사키세관무역통계 2004년확정치

<그림 4> 나가사키현의 주요수출상대국·지역(아시아)



자료 : 나가사키세관무역통계 2004년확정치

<그림 5> 나가사키현의 주요수입상대국·지역(아시아)

### (3) 나가사키현과 한국의 무역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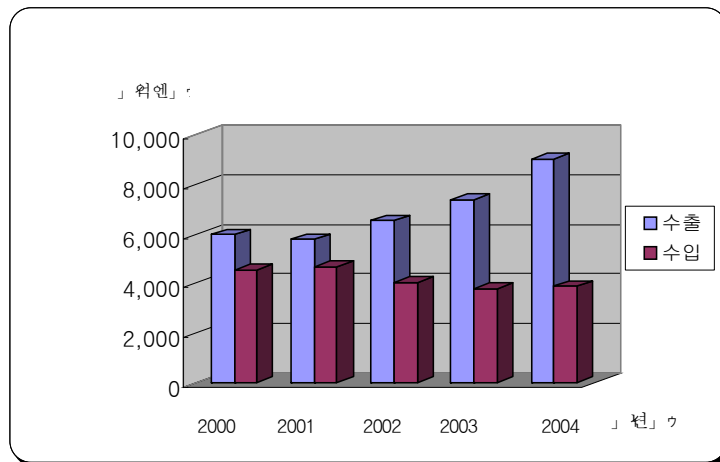
큐슈 7현과 한국과의 무역액의 추이를 보면, 최근 수출은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입은 완만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

나가사키현도 큐슈 전체와 비슷하게 수출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입은 일진일퇴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그림 7).

이러한 수입증가의 둔화는 중국경제발전이나 기술력의 향상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되고 한국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을 중국이 대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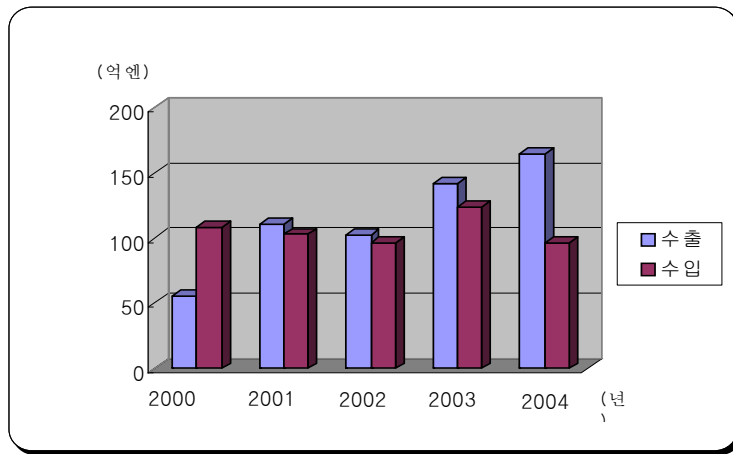
또한 나가사키현과 한국과의 주요한 무역품목은 수출에서는 기계류와 수송용기기가 전체의 80% 돌파하고 있다(그림 8). 한편 수입에서는 광물성연료, 원재료제품, 기계류와 운송기기가 각각 20~30%로 합계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다(그림 9).

이렇게 나가사키현도 큐슈 전체와 동일하게 한국과의 무역거래액은 수출을 중심으로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내용은 기계 등 수송용기기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취급분야 및 품목의 거래액은 적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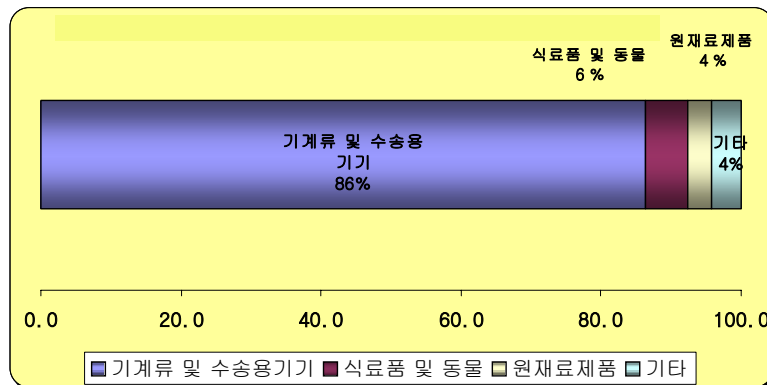
자료 : 몬지세관무역통계

<그림 6> 한국과의 무역액추이(큐슈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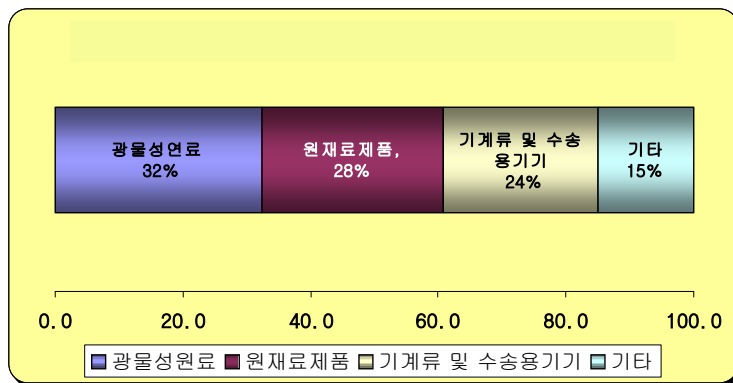
자료 : 문자세관무역통계

<그림 7> 한국과의 무역액추이(나가사키현)



자료 :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그림 8> 나가사키현의 한국상대 주요수출품목(2004년)



자료 :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그림 9> 나가사키현의 한국상대 주요수입품목(2004년)

## 2. 한일FTA체결의 움직임

현재 일본과 한국간에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의 움직임이 있다. 경제교류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FTA에 대한 현황을 보기로 한다.

### (1) 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이란 특정의 국가나 지역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물건이나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도모함으로써 양국 또는 지역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협정을 말한다. 최근에는 FTA의 발전형으로서 물적분야의 무역자유화 외에 자본 및 사람 이동의 원활화, 서비스, 정보, 지적재산권 등 폭 넓은 분야의 이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협정 EPA(경제연계협정)를 체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을 총칭해서 FTA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에는 122건(2005년 1월4일 현재, 일본무역진흥기구HP로부터)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지금까지 가맹국이 넓게 적용된 무역협약 및 경제분쟁처리라고 하는 다각적기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시하고 개별의 국가 및 지역에 한정된 협정체결은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WTO의 가맹국 및 지역이 140을 넘어선 상황에서 다국간의 경제분쟁처리가 정제되고 기동성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여 FTA를 체결하는 국가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해서 무역 및 투자면에서 불리하게 됨으로써 WTO를 보완해서 FTA를 체결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 (2) 한국과 FTA교섭현황

일본의 FTA의 체결은 2002년 1월의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005년 4월에는 멕시코와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필리핀과의 협정에 합의하였다. 그 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과의 조기합의를 위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FTA체결은 인접해 있는 선진국의 시장이 일체화하는 경제효과(표 1)가 크며 서비스를 포함한 재화 및 자본의 이동이나 교류가 활성화함으로써 양국의 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선진국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금후의 아시아제국과의 경제연계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이후, 광공업분야의 관세철폐나 농수산품의 시장개방 등의 문제로 교섭이 중지상태가 되어 있으며 양국수뇌가 합의한 년도에 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양국의 FTA체결은 한일쌍방에 유익하여 조기의 교섭진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1>

<p>&lt;FTA의경제효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저하에 의한 수출입량의 확대</li> <li>• 가격저하에 의한 실질소득과 소비의 증대</li> <li>• 저렴한 재·서비스의 유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경쟁촉진</li> <li>• 우수한 경영 노하우·기술의 유입</li> <li>• 직접투자의 활성화</li> </ul>
--

자료 : 통상백서2001 및 그 외의 자료에 의거하여 당연구소가 작성

### 3. 나가사키현내 기업의 앙케이트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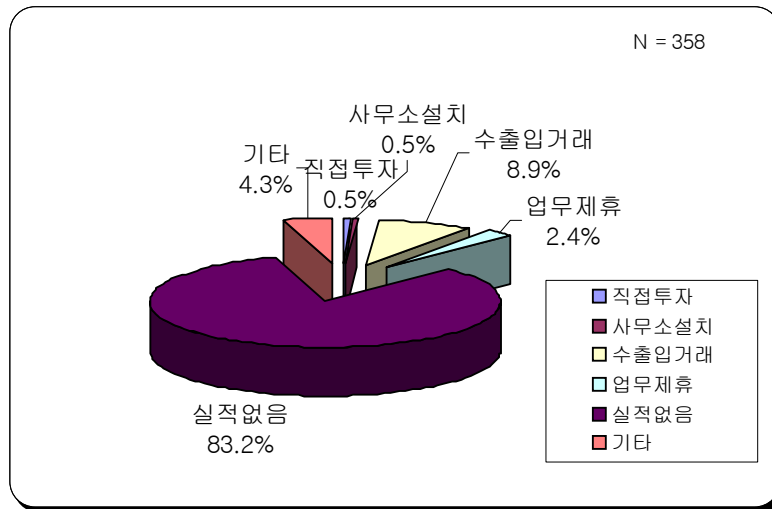
나가사키현내 기업의 한국 비즈니스의 실태와 한국과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비즈니스에 관한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가사키현내 기업의 한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p>한국 비즈니스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대상 나가사키현내 기업 986사          조사시기 2005년 2월 상순          회답기업 376사(회수율 38.1%)</p>
--

한국과의 거래유무(복수회답 가능)

약10%가 거래실적이 있음

한국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은 회답기업 358사중에 35사, 전체의 약10%이었다. 직접투자가 2사, 사무소개설이 2사, 수출입거래가 33사, 업무제휴가 9사이었다. 또한 실적 없는 기업은 307사(그 외를 제외함)로 전체의 80%를 넘고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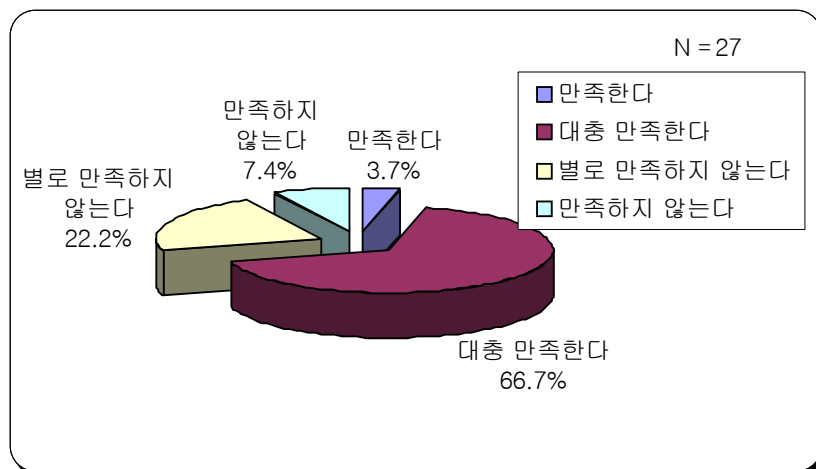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과의 거래상황

### 한국과의 거래만족도

약70%의 기업이 거래에 만족

한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 거래는 “만족하고 있다”가 약70%,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다”가 약30%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만족도가 비제조업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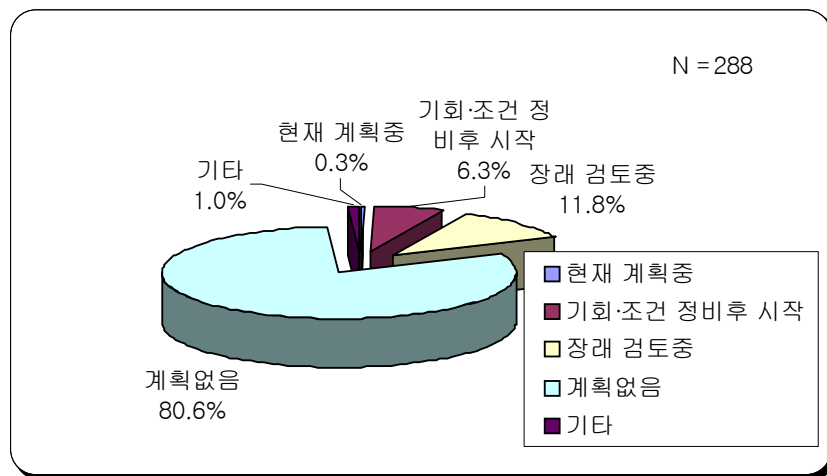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과의 거래만족도



한국과의 거래계획

약20%의 기업이 거래계획에 긍정적

또한 한국과의 거래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228사 중에서 “거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232사로 약80%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이 1사, “기회와 조건이 주어진다면 시작하고 싶다”가 18사, “장래적으로 검토”가 34사로 거래에 긍정적인 기업이 53사(그 외를 제외함)로 전체의 약20%이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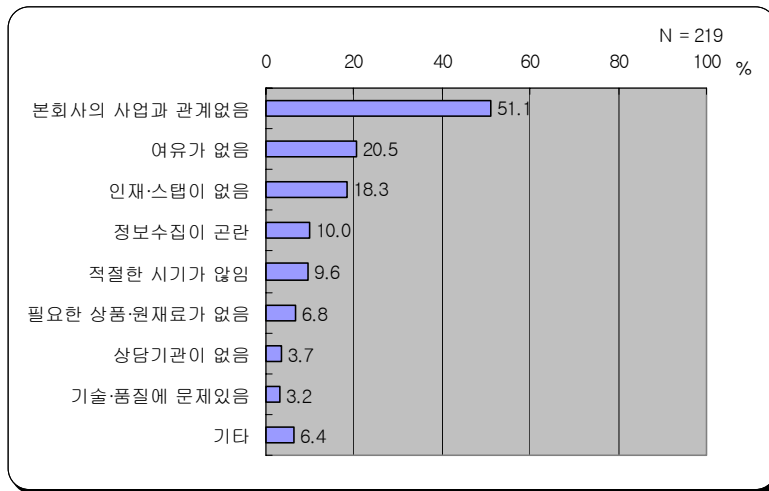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과의 거래계획

한국과 거래하지 않는 이유(복수회답 가능)

“자사 비즈니스와 관계없음”이 가장 많음

한국과 거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 중 그 이유는 자사의 비즈니스와 관계없음이 5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여력이 없다 인재 및 스텝 없음으로 나타났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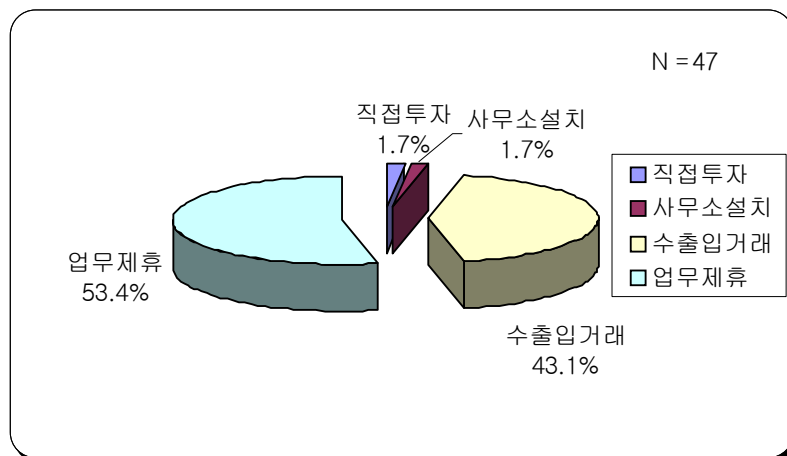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과 거래하지 않는 이유

비지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래형태(복수회답 가능)

“업무제휴” “수출입”이 대부분

한편, 장래 한국과의 비지니스를 생각하는 기업의 거래형태는 “업무제휴”가 53.4% “수출입거래”가 43.1%로 이 두개의 거래형태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직접투자과 사무소개설은 각각 1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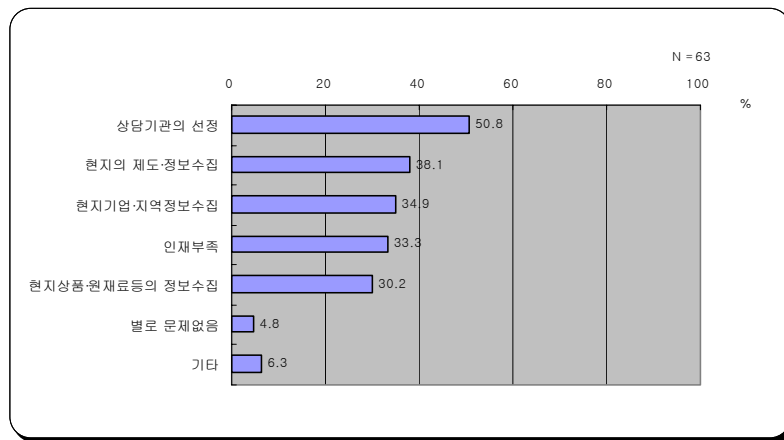


<그림 14> 거래계획기업의 거래형태

비지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문제점과 과제(복수응답 가능)

“상담기관의 선정”이 가장 많음

한국과 비지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문제점과 과제로서는 “상담기관의 선정”이 5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지의 여러 가지 제도 및 정보수집” “현지기업과 지역의 정보수집”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과 현지 및 거래상대의 정보수집이 주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한국 비즈니스 추진상의 문제점·과제

양케이트 결과정리

양케이트 결과를 보면, 한국과 비지니스의 실적이 있는 나가사키현 기업은 회답기업의 약10%로 매우 소수이었다. 그러나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한국의 제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였다.

또한 새로운 비지니스의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사 비지니스에 한국과의 거래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욕이 부족했지만 약20%의 기업이 업무제휴나 수출입거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비지니스를 새로운 확대의 여지 및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비지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비지니스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해 줄 기관을 구하고 있고 또한 거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자사의 체력, 인력부족, 정보수집의 문제 등을 한국과의 비지니스에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 드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과의 비지니스 확대에는 자금면이나 노하우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서포터 체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한국 비즈니스 추진에 대한 대처

양케이트 결과에서 한국 비즈니스 추진상 과제로 나타난 “상담기관의 선정”이나 “현지 및 상대기업 등의 관련정보수집”에 대해서 나가사키현내 지방자치단체와 기타큐슈시의 한국 비즈니스 지원 추진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나가사키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례

나가사키현내에는 나가사키현을 시작으로 나가사키시와 쓰시마시가 한국과 적극적으로 문화와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가사키현은 1993년에 사가현에서 개최된 “한일해안선 시도지사교류회의” 합의 사항에 기초하여 1994년도부터 큐슈북부 3현(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사가현)과 야마구치현(1999년도부터 참가)과 한국남해 1시3도(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와 경제분야의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한국에 경제교류친선단을 파견하여 일본측 14사와 한국측 34사가 교류에 참가하였다. 나가사키현에서도 6사가 참가해서 31건의 상담이 있었다.

그리고 나가사키시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추진하는 지방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한 “로컬 투 로컬 산업교류사업” 2002년도와 2003년도 대상사업으로서 나가사키시와 한국 대전광역시의 IT관련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2년간에 걸친 산업교류로 나가사키시내의 IT관련산업과 현지기업간에 기술제휴나 소프트웨어의 수입계약 등의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나가사키시와 민간기업과의 한국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나가사키-부산 비즈니스 추진협의회”가 발족해서 2004년도는 나가사키현내 기업에 대한 한국 비즈니스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05년도 사업으로서 나가사키시에서 한국부산시의 기업과의 상담회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금후의 거래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기타큐슈시의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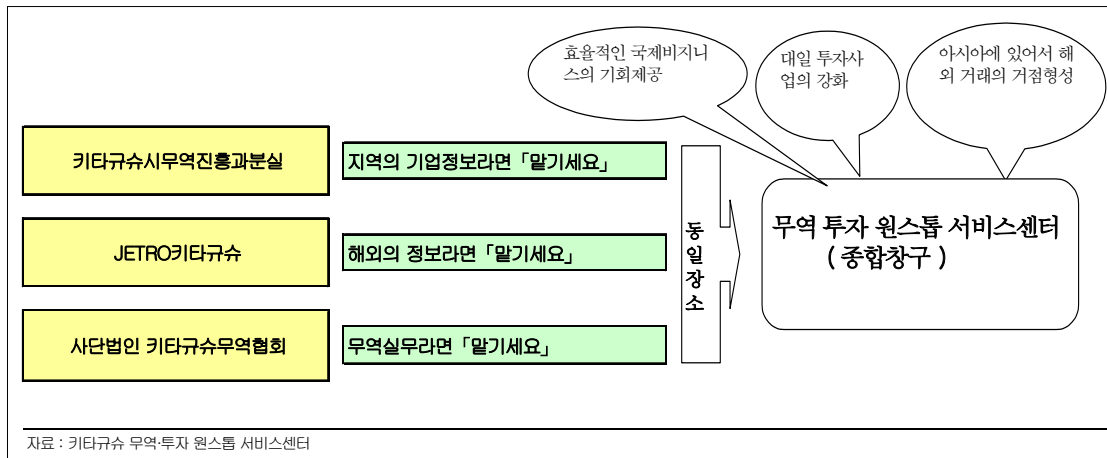
###### 기타큐슈 무역 및 투자 원스톱 서비스센터

2004년 10월 고쿠라역 북쪽출구의 아시아태평양인포트마트(AIM) 8층에 “기타큐슈 무역 및 투자 원스톱 서비스센터, Kitakyushu Trade and Investment One-Stop Service Center” (이하 센터라고 함)가 개설되었다.

이 센터는 “다양화하는 지역기업의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나 지원실시,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나 국제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맞춘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역기업의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키타큐슈시 무역진흥과”, “키타큐슈 무역정보센터(JETRO키타큐슈)”, “사단법인 키타큐슈무역협회” 등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조직을 융합하여 같은 오피스에 모여서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고 연계를 도모하여 지역기업의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실현시켰다(그림 16).



<그림 16> 키타큐슈 무역·투자 원스톱 서비스센터

하드면의 기능으로서 지역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는 “키타큐슈 제품 및 기술 전시코너”, 해외기업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스타트업 오피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지역기업과 창업가가 해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오피스를 제공하는 “국제 비즈니스 프로모션 오피스”, 견본전시회 및 상담회와 세미나를 열 수 있는 “FAZ전시장” 등이 있다. 현재 이 센터에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의 기업 7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프로모션 오피스도 전체 5실이 만실상태로 입주기업은 동센터의 하드기능과 소프트기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면에서는 시내 및 국외에서 해외기업과의 상담회나 견본전시회의 개최, 일본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해외기업에게의 정보제공, 국제 비즈니스의 최신정보, 해외 동향 등의 정보제공, 실무경험이 풍부한 무역상담사의 기업방문, 수출입에 필요한 자금의 저금리융자, 해외의 견본전시회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락처 : 北九州市小倉北區淺野3丁目8番1號 アジア太平洋インポートマート  
AIMビル) 8階  
TEL : 093-551-3610, <http://www.kti-center.jp>

나가사키현내에 있어서도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실적을 보면 결코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키타큐슈시의 해외 비즈니스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는 나가사키현에 있어서도 큰 참고가 되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키타큐슈시와 같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국제비즈니스 지원조직과 기관의 밀접한 연계나 협력관계에 기초한 횡적종적 연계를 활용한 지역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마무리

나가사키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지역인 동아시아제국과의 비즈니스 확대가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근린국인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제 교류의 확대는 나가사키현내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장래 일본과 동아시아제국과의 경제연계가 확대되어 지역통합이 진전된다면 동아시아 경제는 일체화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근린제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 및 분업체제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나가사키현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도 나가사키현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체제의 준비가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